



보도 일시	<전매체> 배포즉시	-
-------	-------------------------	---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신천 (044-204-7640)
	기술창업과	담당자	사무관	박병민 (044-204-7642)
			주무관	최호철 (044-204-7651)

이영 장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만나
- 세계경제포럼(WEF)와 함께
‘코리아 미트 이노베이터(Korea Meets Innovators)’ 개최 -

- 이영 장관,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코리아 미트 이노베이터(Korea Meets Innovators)’ 간담회 참석
-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한국 창업생태계를 소개하고, 사업 동반자(파트너)로서 한국에 더 많은 관심 당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현지시간) 19일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이노베이터 공동체(커뮤니티)(Innovators Community)가 참석하는 ‘코리아 미트 이노베이터(Korea Meets Innovators)’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일시/장소) 1.19(목), 07:30~08:30 (현지시간) / 콘그레스 센터(Congress Centre)

이노베이터 공동체(커뮤니티)(Innovators Community)는 세계경제포럼이 윤리성과 혁신성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있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해 구성된 회원(멤버십) 공동체(커뮤니티)이다.

이 공동체(커뮤니티)는 2000년 기술선도 초기기업(Tech Pioneer)으로 시작해 올해에는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까지 포함하는 공동체(커뮤니티)로 확장됐다.

이노베이터 공동체(커뮤니티)(Innovators Community)에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세계경제포럼의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해 공동체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세계경제포럼에 초청을 받아 세계(글로벌) 의제를 다룰 자격을 갖게 된다.

이노베이터 공동체(커뮤니티)(Innovators Community)에는 에어비엔비, 구글,

트위터 등도 선정된 바 있으며 한국의 루닛, 그린랩스와 미국에서 한인 창업가가 키운 유니콘 창업기업(스타트업)인 늬, 스프링헬스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영 장관은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에게 한국의 창업·벤처 정책을 소개하고, 세계(글로벌) 경제전망과 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창업생태계의 도전 및 기회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영 장관은 “급격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며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위험(리스크)이 큰 벤처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채권 투자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세계증시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피오(IPO) 등 회수시장은 계속 부진할 수 밖에 없어 중·대형 투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반(인프라)과 인적 자원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인 한국의 기술력과 적응력을 볼 때, 다양한 사업(비즈니스)을 만들어 내는 한국이 아시아 및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시험무대(테스트베드)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를 경제의 한 축으로 삼을 정도로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의지가 강하다”며,

“아시아의 교두보로서 기술과 인재가 있는 한국을 여러분의 사업 동반자(파트너)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라며 한국 창업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